지역 소식통

심덕섭 고창군수, 추석맞이 장보기… 시장상인 격려

심덕섭 고창군수가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식당을 이용하고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하여 여성단체(고창여성단체협의회, 고창경제살리기 여성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고창군지부 등), 금융기관(NH농협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 내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창전통시장에서는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일 구매한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지참하고 고객편의시설 환급부스에 방문하면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자살예방 우수기관 선정… 복지부 장관 표창

정읍시는 지난 1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관을 표창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시의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로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사업 △자살 문제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살 예방분과 운영 등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정읍시,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국제학술대회가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비롯한 해외의 유사한 기록 유산들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고, 홍보와 활용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조 강연에서 서경호 위원장(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확장되고, 세계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라고 논평했다. 헬렌 자비스(Helen Jarvis) 등재 소위원회 위원장(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MOWCAP)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등재 과정을 돌아보고 국제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했다.

1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을 주제로 프랑스, 독일,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여기에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 기록물'과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관련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가 소개됐다. 1부 토론은 김민철 교수(성균관대), 홍경만 교수(루터대), 정근식 명예교수(서울대)가 참여해 해외 기록 유산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의 위상을 비교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부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조재곤, 서강대 교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홍성덕, 전주대 교수)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 토론에는 김양식 교수(청주대), 조재곤 연구교수(서강대), 이동현 선임전문관(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이 참여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에 내재된 자유, 평등, 평화, 개혁, 인간존중과 같은 정신이 프랑스혁명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향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기반으로 시와 기념재단은 꾸준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준공기념식

고창읍사무소 · 가족센터 입주 등 행정문화복합시설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에 행정기능과 가족지원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 문을 열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준공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과 김만기 도의원,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기존 읍사무소 신축 계획과 더불어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가족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융복합화하여 총사업비 185억원이 투입됐다.

그동안 고창읍사무소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새로 신축된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도입했다.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해 영유아가족·장애인·노약자 등이 방문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배려했다.

특히 고창군 가족센터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행정서비스는 물론 가족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에 더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췄다. 또한, 협소한 군청의 행정기능을 나눠 2개과(인재양성과, 도시디자인과)가 함께 입주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청을 중심으로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와 함께 내년에 준공되는 '고창군청 제2청사'와 '고창황윤석도서관'까지 고창군 핵심지역의 행정문화 클러스터화로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호도시 관계 수립 양해각서 체결'

부안군-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 양 도시간 공동 발전 도모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기준)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시장 폴김)와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팰리세이즈파크시청에서 우호도시 관계 수립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폴김 팰리세이즈파크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간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양 도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정과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 서로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양 도시가 서로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민간 분야 및 커뮤니티 그룹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특히 군은 오는 14일(현지 시각 기준) 팰리세이즈파크시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부안 관광 홍보 영상 상영, 관광 홍보 책자·책갈피·마스크팩 등의 기념품을 배부하는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CC한인동포회관 업무협약 체결, 부안청자박물관 현지 기획전시 등 관광 교류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민관협업 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 구성 운영

부안군은 부안상설시장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이전 운영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민관협업을 통해 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를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지역대 운영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 예찰 강화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추진됐다.

시장지역대 편성 인원은 20명이며 2인 1조로 구성해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또 시장지역대는 부안상설시장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에 추가해 부안상설시장 내 화기 취약 요인 안전조치, 소방 활동 및 진압 활동 장애요인 제거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은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통시장 안에 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국 전통시장 화재 예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화재가 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소작답 양도투쟁 농민운동 기념탑' 건립

고창군이 11일 심원면 궁산저수지에서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농민운동 기념탑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은 농민운동 참여자, 관내 기관단체장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주년 고창 소작답 양도 기념행사와 함께 고창소작답양도기념사업회(회장 이성규) 주관으로 진행됐다.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농민운동은 1950년 토지개혁과정 중 농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삼양사 소유의 고창 간척지를 되찾기 위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조직적인 투쟁을 벌인 운동이다.

약 3년 동안 심원면 궁산마을 김재만씨를 비롯한 심원면 해리면 일대 소작농들은 궁산저수지 둑에서 시위를 시작하여 카톨릭 농민회와 기독교 농민회 그리고 고려대학교 농활단 지원으로 서울 상경 투쟁, 삼양사 본사 점거 농성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37년 전인 1987년 9월 11일 수 차례의 협상 끝에 삼양사 측이 소작농들에게 소작답 296ha를 정부 고시 가격인 평당 1,881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24개 안건 처리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을 비롯하여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의 주된 목적은 군민을 대신해 현장을 점검하고, 군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검토와 함께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부안군의 발전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쌀값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가위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장 제안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문 채택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문'이 지난 10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85차 월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병래 의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 대다수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수명연장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원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지자체와 의회가 배제되는 현행 원자력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6월 21일 제351회 정례회에서 이미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